

# 미국, 올레핀 공장 추가폐쇄 불가피

에너지가격 강세 및 중동·아시아 확대로 ... 일시감축 상승효과 없어

미국 석유화학 시장은 미국 걸프(Gulf) 지역의 잇따른 석유화학 플랜트 정기보수 및 예상 밖의 수요증가에 따라 올레핀(Olefin) 수급타이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코스트 하락과 석유화학제품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Chemical Market Associates(CMAI)에 따르면, 2003년 2/4분기 에틸렌(Ethylene)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해 3/4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졌고, 수요강세와 더불어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수급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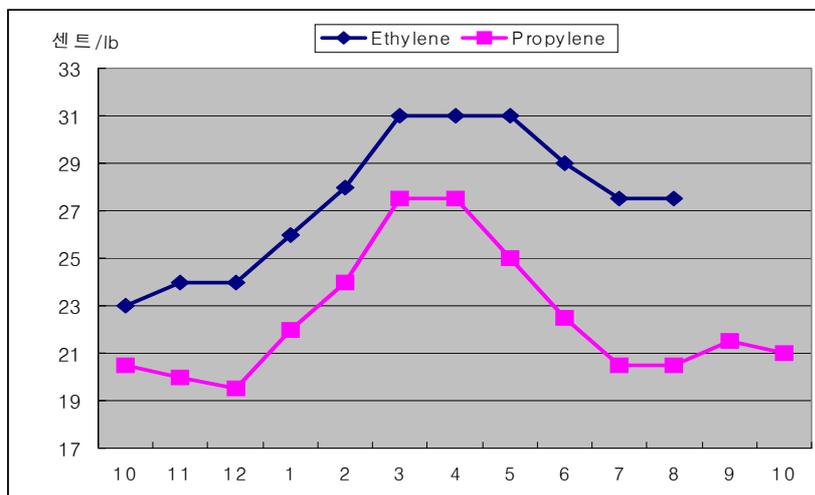
ExxonMobil Chemical, Equistar Chemical 및 Chevron Phillips Chemical(CPChem) 등 Gulf 해안 지역에 있는 3개 플랜트가 정기보수를 실시해 미국 올레핀 시장은 공급이 부족했다. ExxonMobil은 11월 첫째주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CPChem은 이미 텍사스주 Sweeny 크래커를 재가동하고 있다.

수급은 타이트해졌으나 에너지 코스트가 하락함에 따라 올레핀 가격은 여전히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코스트가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고감소가 에틸렌 Spot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이 한걸음 물러나면서 에틸렌 Spot 가격 상승세가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에틸렌 Spot 가격은 파운드당 23센트에 머물고 있다.

2003년 4/4분기 에틸렌 시장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틸렌 수요는 3/4분기에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과거 2년 동안 12월에는 주기적인 수요약세가 나타났으나 2003년에는 4/4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장기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올레핀 가격 변화(2002.10-2003.10)



EO(Ethylene Oxide)/EG(Ethylene Glycol) 시장 및 Vinyl 시장은 지속적인 수요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PE (Polyethylene) 시장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 4/4분기에 에틸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수급 타이트로 인해 당분간 양호한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프로필렌(Propylene) 수요는 에틸렌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수급밸런스가 안정된 편이나 Chemical 그레이트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2003년 10월 프로필렌 가격은 평균 0.5센트 하락했는데, Polymer 그레이트는 파운드당 21센트로, Chemical

그레이드는 19.5센트로 하락했다. Refinery 그레이드 Spot 가격은 11월 현재 파운드당 16센트를 나타냈다.

한편, CMAI는 최근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미국 올레핀 시장, 특히 에틸렌의 예상 회복시기를 2006-08년으로 연기했다. Merrill Lynch도 다음 피크기를 2006-07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피크기간도 예년에 비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5-07년에는 중동 및 아시아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크기 단축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피크기 연장을 위해 고 코스크 크래커를 폐쇄하거나 천연가스 가격하락에 운명을 맡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미국기업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생산능력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텍사스주 Texas City 및 Seadrift 크래커를 폐쇄한 Dow Chemical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직 크래커를 공전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Equistar, Hunstman, CPChem 및 ExxonMobil은 모두 미국 에틸렌 생산능력의 4%에 달하는 크래커를 공전시키고 있으며 마진이 회복되면 다시 재가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08>